

EUNSEOK CHURCH MATHIES

삶 그리고 그림

신윤식

온 몸 붓 되어
이 색깔 저 색깔
가득 묻혀
흐르는 삶
그림으로 그려진다.

숨조차
내 맘 대로 못하면서
세상 힘 얻어
욕망대로 살고 싶은
숨길 수 없는 마음이
한 장 한 장 그림 되어
저주를 보여준다.

눈을 뜨라고
붉은 피로 덧칠한
또 다른 그림 하나
그 속에 빛이 흐른다.

보고 또 바라본다.
나를 느끼고 싶어
생명을 느끼고 싶어

그림과 그림이 맞닿아
둘이 하나로 되어
핏빛 담장 위에 걸려진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 따라 흐르는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진다.

제24권

35

2016.8.28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이스라엘과 곡

겔 38:10-16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삶의 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한낱 말로 끝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신앙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앙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관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삶의 자리와 연결된다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사 33:5-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자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고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보배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만 남아도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존귀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잘못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됐습니다 라는 참된 가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 없이 **“믿으면 어떻게 된다 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성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을 하나로 신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이라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이 의미하는 것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을 하나만 남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이것을 담아서 나타내는 길로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 TV드라마, 연극 등에서 그 결말이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된 행복으로 끝나는 것을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독자나 시청자들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면서 그 주인공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실제 삶이라면 행복한 결말의 상태는 결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생을 혼드시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신 분이시면 신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일로 자신을 가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가치를 멸시하는 것이 됨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삶에서도 믿음의 가치만 드러나는 것으로 신자 됨이 증거 되는 것을 위해 삶이 흔들리는 고통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36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겔 36:24-27)

또한 37장에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소망이 없고 멸절된 것과 같은 상태였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말씀들은 분명 희망과 회복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희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곡 땅에서 곡을 등장하게 하여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에 빠뜨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고통을 겪다가 겨우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평안히 거주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이방나라를 꼬집어내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평온을 깨뜨리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회복이 곧 '고통 끝 행복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알고를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곡 땅이 어느 지역의 땅을 말하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마곡 땅에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세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세 민족의 왕이 연합한 것을 곡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곡은 마곡 땅의 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곡을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펀과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여 그들 모두를 끌어 다가 16절에서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 오리라 곡아 곧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이유는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곡을 끌어다가, 그것도 부족하여 다른 이방 민족까지 더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

엘 산에 이르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고 말합니다.

곡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은 칼을 벗어나 이방에서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곡 역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 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시” (14절)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4절에서도 “인자가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한다는 말이 거듭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평안을 누리게 할 상태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곡을 보내어 평안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평안을 깨뜨리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에게 곡을 보내어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곡을 보내어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겔 36:25-27절에 의하면 고국 땅으로 돌아가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정결하게 되었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신다는 것

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마곡과 곡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 20:7,8절을 보면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 있던 사탄을 놓아 주셔서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사탄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과의 싸움 속에 있는 것이 참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에게 마곡 땅의 곡을 보내어 치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이런 싸움에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비하심과 사랑을 보이십니다. 또한 도무지 정결해질 수 없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보배가 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임을 알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길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곡 땅의 곡을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로 보내어 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일한 단 하나의 가치로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유일한 가치로 남는 것보다 믿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마귀로 인한 마곡과 곡의 싸움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싸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고 되기 위해 힘을 씁니다. 하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어진 존재입니다. 완성된 존재로 완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말을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자신을 보면서 부족을 느끼며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는 것이 현실임을 생각한다면 완성된 존재는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존재라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 6:9절을 보면 노아를 기리켜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고, 창 17: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 18:13절에서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인간 자체의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완전하신 분과의 관계로 인해 완전하다고 여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되어야 할 것이 없고 이미 된 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되어졌는가?'

점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되어진 성과가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자에게 완성의 세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로 존재하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가치로 남을 뿐입니다.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신자로 밀미압아 증거 되는 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마곡의 곡을 보내어 평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을 누리며 잘 살게 된다는 것은 거짓된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과연 평안을 누리는지 둘러보십시오. 물론 평안한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하게 평안한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의 평안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에 붙들려 산다는 것 자체가 환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당당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겔 30장에 보면 마곡의 곡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곡의 곡의 활동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 잠시 허용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옥에서 나온 사탄이 잠시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붙들려 영원한 사망에 간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곡의 곡으로 평안히 거하는 이스

엘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환난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앙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접하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믿음은 보상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보상을 꿈꾸지만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간인데 무슨 보상을 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놓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겪게 되

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심을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신을 향한 관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환난인 것입니다.

16절 뒤의 말씀의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뜨리고 환난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과 죽음

롬 6:4

믿음 77강 8. 7월 설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피 흘려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팔히 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죄에 대해 말하기를 거북스러워합니다.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믿음만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증거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건너 뛰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는 희미해지고 세상의 평안을 보장해주는 예수 아닌 예수만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예수입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죽음을 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죽음을 자신의 경험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죽음을 자기 경험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죽음은 단지 타인의 죽음을 목격한 것이나 무엇을 죽음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누구도 죽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험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시작은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설교가 죄로 시작하게 되면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선한 실천은 가능하지 않음을 말하게 되고 행함을 조건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곧 죽음 아래 있는 죄의 모습임을 증거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 교회의 위기는 설교가 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신앙으로 왜곡되어 가르쳐지고 있고,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는 신앙의 세계에서 철거되어 묻혀 지고 인간의 행함의 공로만 부각되어 자랑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육신의 생물학적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 육신의 죽음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인간이 죽음의 힘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육신의 죽음에서 인간이 도무지 한거할 수 없는 강력한 죽음의 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죄의 힘을 느낄수록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한 의의 은총과 그 능력이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자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 인간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면 그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세계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23절에서 “죄의 삯은 사망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예수님도 죄의 삯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삯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사망에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 안에 존재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를 사

망에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신자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안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죄와 상관없게 된 신자에게 허락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것이 신자라는 사실을 못미더워합니다. 왜 그렇까요? 매일 죄를 지으며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매일 같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되어진 상태를 상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8,9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명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이로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죄에 대해 너무 안이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비취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되어진 은혜의 세계에 있다면 신자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알게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의 몸입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뜻할까요? 그렇게 되면 신자는 육신이 죽어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육신이 죽는다면 육신에 대한 욕망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17,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따름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내용은 육신이 죽어 죄로부터 해방된 후의 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현재 생존에 있는 우리와 무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자기 몸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향한 욕망으로 몸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십자가에서 바라본다면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나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에게서는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사랑하고 몸을 위해 사는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

가에 죽게 한 죄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몸을 사랑하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죄의 몸이 죽은 것이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몸을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항상 이 부분을 오해하는데 죄의 몸이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죄를 이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옛 사람과 다른 것은 자기 몸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사랑하고 몸에게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신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며 그 은혜를 높이고 자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된 죽음은 지금까지 말씀드

린 무한한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신자가 이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며 마음에 두게 된다면 세상의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마음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될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에게 죽음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새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 매일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얻게 된 새 생명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창 48:1-7

114강 2016. 8. 17일 설교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인 브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온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3,4절)는 말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야곱이 예서를 피하여 도망을 칠 때 찾아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147세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100여 년 전에 들었던 축복의 내용인데 그것을 왜 죽을 날이 다된 시점에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야곱의 가문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거주하는 애굽 땅에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든 상관없이 애굽은 떠나야 할 땅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은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곳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언약하신 내용을 요셉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왜 굳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일까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음으로 장자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열 두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각기 기업을 받았다면 결국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묶을 받은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상 5:1,2절에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나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 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장자의 명분은 혈통의 순서대로 이

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자의 명분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자식으로 삼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41: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나트를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아스나트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그들을 자식으로 삼았고 결국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의 백성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또한 인간의 혈통이나 조건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는 정통성이나 참된 신앙을 계승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조상이 되는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에 대해 할 말이 없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정통성과 신앙을 자랑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서 우리 자신의 현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교단들 가운데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된 교단이라 해도 그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단이 몇 년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 이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몇 대를 이은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몇 대가 목사이고 장로라는 것, 몇 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일 뿐입니다.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러한 시각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의미할 뿐임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 생각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혈통을 따진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속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아람에게 '내 것이라'는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사 43:1절에 보면 **"아람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것으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생명을 얻게 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 앞에서 신자가 자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심판이 당연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롬 1:16-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

미암아 살라라 함과 같으니라" 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은 모두 내려놓게 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행함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 행함에 따라 믿음이 차별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람의 자식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명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한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자랑하게 될 뿐입니다.

아람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라고 할 때 요셉이나 에브라임, 므낫세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람 또한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생명이라는 구원의 자리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열정, 노력, 의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고 그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한 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교회소식

1. 신자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
구신가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
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은 없
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알
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을 뿐입니다. 이 믿음으
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 신유식 목사는 이번 주간 휴가입니
다.
3. 다음 주일은 서울에 계시는 노요한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풍점초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 일 오 전	11:00
주 일 오 후	2:30
수 요 일	7:30
주 일 학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유식 목사

묵상기도 다 할 깨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9장
 교 독 문 54(시126편)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208장
 성경봉독 겔 38:10-16

● 이스라엘과 곡(92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41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5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조규현 장로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유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73장
 기 도 임수희 집사
 찬 송 534장
 성경봉독 살전 2:7-8

● 믿음과 권위(믿음80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96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박연희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이영민 장로